

여성의 경제활동

김 해 연

1. 제주도 여성, 육지부 여성

제주도는 예로부터 여자가 많은 섬으로 알려져 왔다.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이므로 조난사고가 많았으며, 6.25전쟁, 4.3사건 등으로 인해 제주도의 인구구성은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여성 인구비율의 우세는 육지부와 다른 노동력 구성 조건으로, 남성의 경제활동 영역에 여성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래서인지 제주도 여성은 강인한 생활력과 노동력 그리고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생활태도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제주도 여성상은 남성의 경제활동에 비해 보조적이고 이차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남성과 가문에 의존적, 종속적 삶을 살아가야 했던 육지부 여성과 비교될 수 있다. 이것은 제주도의 도서성으로 인해 여성의 역할을 가정내로 제한하였던 육지부의 유교문화가 활발하게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제주도 여성이 집안 일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로 제주도의 특수한 자연환경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제주도는 화산섬으로 척박한 토양과 잦은 태풍의 영향 등으로 논농사가 부적합하다. 따라서 가축의 힘이나 남성노동력이 주축이 되고 여성의 참여는 보조적으로 이

루어지는 육지부의 답작영농과 달리 제주도는 여성노동력 중심의 발농사가 발전되었다. 또한 사면이 바다인 잇점을 이용하여 일찍이 잠수업을 개발함으로써 해녀는 육지부의 여성과 구별되는 제주도 여성의 특유한 노동력과 생산활동을 상징해 왔다. 이러한 제주도 여성의 역할은 육지부와는 다른 여성 중심의 설화, 민요, 노동요 등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이는 제주도의 생존적 기반에 있어서 제주도 여성의 노동력과 경제활동이 갖는 중요성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목표로 1960년대부터 추진한 경제개발계획과 지역개발 정책은 산업구조의 전반적인 개편을 초래하여 각 지역의 전통적인 생산체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육지부와는 다른 접촉과 교류로 인해 오늘날 제주도는 급속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화에 따른 경제발전은 여성의 고용기회를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증가가 곧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주도는 그 지리적 위치와 자연 환경으로 인해 경, 중공업 우선 정책이 이루어졌던 육지부와 달리 감귤 등의 현금작물을 위한 1차 산업 육성책과 관광산업 지원책의 지역개발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지역개발 정책이 수행되는 과정은 여성 뿐 아니라 남성의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반면 산업구조의 변화와 지역개발의 격차에 따라 남성은 지리적 이동성이 크지만 상대적으로 여성은 이동성이 적으므로 지역경제에 의한 제약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은 한정된 지역의 산업적 여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지역개발 정책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육지부와 구별되는 제주도 여성의 경제활동과 제주도 지역경제 변화 속에서 제주도 여성의 경제적 활동의 의미를 분석한 후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전망을 해보고자 한다.

2. 통계로 본 제주도 여성의 경제활동

(1)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일반적으로 산업화 과정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전국과 제주도를 비교해 살펴보면 (표1)과 같다.

(표 1) 여성 경제활동 인구 및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천 명, %)

연 도	19960		1970		1980		1990									
	전 국	제주도	전 국	제주도	전 국	제주도	전 국	제주도								
지 역 구 분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성 별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14세이상 인구	7,571	7,251	106	78	9,630	9,313	116	98	12,945	11,903	157	137	15,897	14,903	196	177
경제활동 인구	2,064	5,551	70	57	3,621	6,752	70	70	4,973	8,622	79	97	7,474	11,013	83	117
경제활동참가율	28.4	76.7	66.0	73.1	37.6	72.5	57.7	71.4	38.4	72.4	50.3	70.8	47.0	73.9	42.3	66.1
여성의 비율	27.1	55.1	34.9	48.9	36.6	44.8	40.4	41.5								

자료) 인구 및 주택 센서스보고서,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전국의 경우 남성은 변화의 폭이 거의 없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지난 30년간 경제활동 참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산업화 과정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기회가 일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주도는 남성과 여성 모두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고 있다. 이것은 제주도 지역경제나 고용기회 등의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는 점진적인 남성 인구의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도는 육지부와의 인구가동에 있어서 젊은 남녀의 이출인구가 많은 반면 육지부로부터 중장층의 남성 이입인구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큰 폭(7% 대 23.7%)으로 감소한

것은 제주도의 경제적 변화가 여성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2) 직업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여성의 경제활동은 참가율에서도 나타나지만 종사하는 직업에 의해서도 잘 파악될 수 있다.

(표 2) 직업별 여성의 경제활동

(단위 : %)

연 도	1960		1970		1980		1990									
	지역구분		전 국	제주도	전 국	제주도	전 국	제주도								
직업분류	성 별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전문기술직	17.8	82.2	15.1	84.9	22.8	77.2	20.8	79.2	20.8	72.2	26.2	73.8	37.7	62.3	36.9
행정관리직	18.7	81.3	12.1	87.9	3.5	96.5	4.8	95.2	1.5	98.5	3.9	96.1	3.6	96.4	2.2	97.8
사무 및 관련직	5.6	94.4	5.4	94.6	17.0	83.0	16.6	83.4	33.3	66.7	34.0	66.0	34.0	66.0	41.9	58.1
판매직	33.7	66.3	52.4	47.6	33.4	66.6	55.9	44.1	35.2	64.8	49.5	50.5	35.4	64.6	50.9	49.1
농림유사직	30.5	69.5	59.1	40.9	41.5	58.5	57.6	42.4	45.1	54.9	54.2	45.8	44.0	56.0	49.8	50.2
광업 교통통신직	15.6	84.4	10.0	90.0	23.9	76.1	16.9	83.1	25.9	74.1	13.6	86.4	22.5	77.5	7.8	92.2
서비스직	46.7	53.3	37.2	62.8	56.8	43.2	46.1	53.9	51.3	48.7	49.6	50.4	51.3	48.7	55.5	44.5
기 타	45.2	54.8	45.5	54.5	8.0	92.0	14.2	85.8	8.1	91.9	0.0	100.0	0.6	99.4	0.0	100.0

자료) 인구 및 주택센서스,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전국의 경우 여성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직업은 서비스직이지만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는 특징은 전문기술직과 사무직에의 참여 증가이다. 행정관리직은 그 참가율이 상당히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농림유사직의 여성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농업분야의 노동력 여성화, 고령화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제주도에 있어서도 여성의 가장 높은 경제활동은 서비스직에서 나타나

며 가장 낮은 비율은 행정관리직이다. 전국과 비교할 때 제주도만의 특별한 여성직업의 편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여성의 직업 참여와 남성의 직업 참여가 대략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특정 직업을 갖는데 있어서 제주도 여성이 보다 용이하며 남녀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제주도의 산업구조 상 역으로 육지부의 경우 여성이 참여하기 쉬운 직업 분야에 남성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예를 들어 전국과 동일하게 분류된 전문기술직이라고 하더라도 제주도에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전문기술직과 육지부의 전문기술직의 내용 및 그 사회적 지위 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2. 지역경제의 발전과 여성의 경제활동

지금까지 제주도 지역은 1963년도의 자유지역설정을 시작으로 92년의 제2차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에 이르기까지 15개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되었거나 구상되어 왔다. 이러한 지역개발정책은 제주도 지역경제의 기반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주요 변화만을 다루고자 한다.

(1) 마을 공동목장과 중산간 개발

1960년대는 도로, 항만, 공항과 같은 기반시설의 확충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그 동안 방치되어 왔던 중산간 지역이 개발되었다. 한라산 중산간 지대는 경사도가 완만하고 넓은 목초지가 발달해 있어서 목축을 위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었다. 중산간에는 기존에 마을공동목장이 형성되어 마을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목장을 이용할 권리를 갖고 있었고 공동으로 관리가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중산간 종합개발에 따른 축산진흥정책 결과 마을 공동재산이었던 목

장은 시. 군으로 귀속되고 소유권이 제주도 외부의 육지인, 구체적으로는 재벌기업이나 투자자들(남성)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마을 공동재산권의 붕괴는 이를 기초로 생존을 영위했던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대안적인 생산활동을 요구하게 되었다.

(2) 감귤 등의 현금작물 재배

제주도는 1968년 중문의 감귤단지 사업을 성공시키기 전까지는 맥류나 잡곡 위주의 발농사가 주를 이루었다. 이는 여성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생산조건이었지만 감귤이 본격적으로 제주도 특유의 환금성 작물이 되자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감귤은 수확을 할 때까지 몇 년 간의 투자기간이 요구되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영농지식을 필요로 한다. 더욱이 감귤 재배가 대단위화 내지 기업화되면서 재배, 수확, 판매, 저장에 이르는 전 과정은 단순 노동력을 제공하는 여성보다는 조직적, 체계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남성의 통제 하에 놓일 가능성이 커진다.

(3) 관광산업 육성과 3차 산업 발달

제주도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고유한 지역문화는 관광산업을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되었다. 따라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주도는 1차, 2차 산업보다는 3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공공 투자와 금융지원에 힘입어 육지부와 외국의 대규모 자본이 관광개발에 투자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 경제는 국내 자본과 국외 자본을 중심으로 한 관광서비스 산업 및 제주 자본과 노동에 근거한 일차 산업의 이분화라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감귤재배 확대와 농산물 개방과 더불어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빈번한 국제행사 개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관광산업을 제주도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관광산업 중심의 제주도 개발은 제조업의 성장없이 곧바로 서비스산업의 팽창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여성의 서비스업 참여 집중이라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서비스업은 매우 다양하며 이질적이

면서도 고용상태는 불안정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피고용인이 5인 미만인 비공식부문에 속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서비스업에 여성이 집중적으로 취업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의 경제활동이 저임금, 열악한 작업환경과 불안정한 상태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4) 지역경제의 발전과 잠수업의 퇴조

잠수업을 갖고 있는 해녀는 제주도 여성의 특수한 경제활동으로 척박한 토양의 생산력이 많지 않았던 시절 중요한 생계수단이었다. 더욱이 수산물의 상품화와 가격 상승은 해녀들의 수를 크게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잠수업만을 전업으로 하는 해녀들보다는 많은 해녀들이 밭농사와 가정일과 더불어 잠수업을 융통적으로 병행하였다. 따라서 해녀들의 경제적 기여도가 컸다고 해도 노동량 부담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해녀들 스스로는 물질에 대한 애착과 경제적 자립성을 높게 평가한다고 해도 그 일 자체는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좋지 않아 제주도의 지역경제의 발전은 잠수업의 퇴조를 초래하였다. 즉 전반적인 생활수준 및 교육수준의 향상, 육체근로자 및 3D노동 기피현상, 현금작물의 재배와 관광산업의 발달은 해녀수의 실질적인 감소와 고령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어촌계를 중심으로 한 양식업의 발달은 해녀사회에 존재했던 자율성과 의사결정권보다는 조직내 남성 감독자의 통제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 변화 속의 제주도 여성 그리고 제주도

지금까지 시대의 변화, 특히 제주도의 경제적 여건의 변화 속에서 제주도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고찰하고 그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았

다. 제주도는 예로부터 그 특수한 지리적 위치와 자연적 환경 및 고유한 문화 등으로 인해 여성의 노동력이 중요한 생존요소였으며 경제활동도 육지부 여성에 비해 활발하였다. 그러나 제주도는 정부주도의 정책이 잇달아 실행됨으로써 경제발전에 의한 생산체계 및 산업구조의 변화가 초래되었다. 이러한 변화된 생산조건에 대해 제주도 여성은 적응적인 경제활동으로 대처해 왔으며 나름대로의 활로를 모색하였다. 즉 대대로 내려오는 근면성과 독립성을 기초로 기존의 혹은 새로운 생산분야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 여성은 다양한 영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제주도 가계, 나아가 전체 경제를 이루어 낸 발판이 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한 경제활동이 제주도 여성 스스로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제주도 여성' 하면 제주도 사람이나 육지부 사람 모두 노동력으로서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이것은 제주도 여성이 갖고 있는 노동력의 양적 측면을 의미하고 있다. 제주도 여성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많은 가사일을 해야만 했던 육지부 여성과 달리 가정에서, 밭이나 산에서, 심지어 바다 속에서 생존을 위해 보다 많은 노동을 부담해야만 했다. 시대는 바뀌어서 과거와는 다른 산업구조 속에서 살고 있어도 오늘날의 제주도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활동은 여전히 노동력의 양적 의미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도 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경제활동은 통계상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대부분 높은 수준의 기술과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이다.

어떤 개인에게 있어서 경제활동이란 생활을 위한 수단을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목적일 수 있으며 후자는 생활의 질 및 복지의 관점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제

주도 여성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은 자신의 노동력이 갖는 양이 아니라 질적 특성이며 그 가치일 것이다. 이것은 임금, 승진 등에서의 높은 보상과 자아실현을 획득하려는 여성들이 전문직분야에 도전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일반적 추세와 맥을 같이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욕구와 능력을 갖춘 제주도 여성의 증가를 눈 앞에 두고, 제주도가 이들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할 것인가이다. 제주도의 미래는 제주도 여성이 맞이할 미래, 바로 그것이다.